

전남 석유화학·철강 ‘더블 리스크’

여천NCC 부도 위기에 직면
“석유화학 업계 3년 내 절반 도산”
산업 위기 철강산업으로 확산
광양시 지방세 24%까지 줄여
정부, 서둘러 지원책 마련해야

위기 경보음이 커진 전남 동부권 산업에 긴급처방이 따르지 않으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중동발 과잉생산의 여파로 여수산단에서 연매출 5조원을 기록하던 여천NCC의 부도 위기설이 나오고 광양만권 철강산업에도 도미노 위기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석유화학·철강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의 경우 지난 8월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달 말까지 31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는 21일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2분기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특히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기초소재 부문은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다.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부문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2161억원을 기록했고, LG화학 석유화학 부문도 904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46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금호석유화학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으며,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도 중단했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했다.

기업들의 경영악화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의 법인지방법인세입액은 지난 2023년 1654억원에서 지난해 551억원으로 3분의 1로 격감했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어 2023년



여수 석유화학산업과 광양 철강산업의 도미노 위기가 확산하면서 긴급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산단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9000명 수준이었던 석유화학산업 일용직 근로자 수는 6000명 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석유산업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이 최근 개최한 제2회 국회미래산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는 “최근 석유화학 기업의 보유 현금성 자산과 영업손익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지속 가능업체는 50%로 연관된 2·3차 벤더사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석유화학 산단 내 실물경제는 악화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법정 관리로 지방 상권 붕괴와 일자리 감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포스코로 대표되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각종 산업지표는 예년 대비 10% 가량 줄어든 상태다. 2년 전과 비교해 생산, 수출, 고용은 각각 13.4%, 10.3%,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광양시 지방세 징수액도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으로 대표되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 가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대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당시 전남지역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전환 및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양 지역공약으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전환 적극 지원 등으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존의 법령으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의 판단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 전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부권 산업의 대전환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지만 하루빨리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한다”며 “특히 특별법이 제정 된다면 정책 효과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별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차 소비쿠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경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경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는 홀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



한상원 회장



김성길 연구원



윤희철 센터장



손승광 교수



김향집 교수

13일 오후 2시 광주MBC 스튜디오

실질적 추진 방향 제시·로드맵 마련

광주일보가 광주MBC·목포MBC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이전 6자TF 구성에 발맞춰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정부 주도 이전과 종전부지 무상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호남권

신성장 거점 조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1부, 국가안보시설 이전 책임 주체 국방부(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2부, 군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 ‘소음’ 해결방안(김성길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 ▲3부, 종전부지 무상 이전과 부지 활용방안(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4부, 종합토론 및 국가정책 제언(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김향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으로 이어집니다.

- 일시: 8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광주MBC 스튜디오
- 주최: 국회의원 이개호·신정훈·민형배·권향열·김문수·문금주·안도걸·전진숙·정준호 정진숙·조인철
- 주관: 광주일보·광주MBC·목포MBC
- 후원: 광주상공회의소

光州日報社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폐쇄적인 환경정책 시민은 답답하다 ▶6면

김도영 멈춰도 KIA는 간다 ▶18면

광주문학 세계 도약 ‘책 생태계 조성’이 중요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울

시카보다 4배* 강한
쑥시카™ 진정의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물추출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

